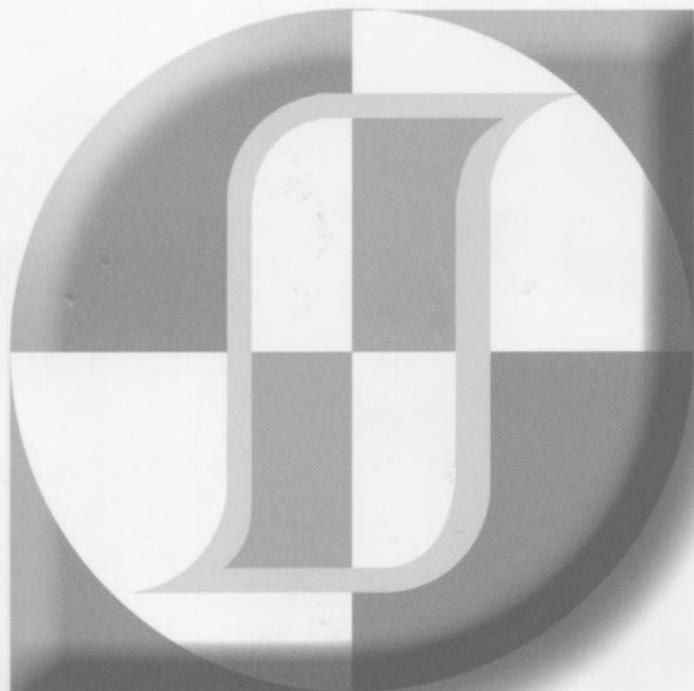


한국자기학회 2009년도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연구발표회

KMS 2009 Winter Conference

논문개요집



일시	2009. 12. 6(일) ~ 12. 8(화)
장소	덕산 스파캐슬
주최	한국자기학회
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Digests of the KMS 2009 Winter Conference
The Korean Magnetics Society

Electron spin resonance in a hydrogen-annealed magnetic semiconductor 반강자성 $\text{LiCo}_{0.99}\text{Fe}_{0.01}\text{PO}_4$ 물질의 저온 Mössbauer 분광학 연구

Sungjae Cho, 이찬혁, 이인규, 김우철*, 김삼진, 김철성

국민대학교 물리학과, 서울 136-702

Department of Physics, Kyung Hee University, Seoul 136-702, Republic of Korea

*E-mail: cho@knu.ac.kr

1. 서 론

LiCoPO_4 물질은 반강자성 물질로써, 저온에서의 여러 가지 전자기적 현상과 큰 자기 이방성을 보이며 최근에는 2차 전지 양극활 물질로도 사용되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온에서의 미시적 자기 특성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동위원소 ^{57}Fe 를 치환하여 Mössbauer 분광 측정을 이용하였다. 또한 외부 자장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4.8 T의 자장을 걸어 그에 따른 시료의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결정학적 특성과 거시적 자기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X-ray diffraction (XRD), 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s (SQUID) 자화율 측정기를 사용하였다.

Recently, Mn-doped Ge with Si impurities was predicted to be a ferromagnetic semiconductor with increased magnetic moment comparable to the case without H-treatment [4]. In contradiction, Wang et al. predicted the

시료를 직접 합성법을 통하여 합성하였으며, 출발 물질로는 Li_2CO_3 , $(\text{NH}_4)_2\text{H}_2\text{PO}_4$, CoO 그리고 동위원소 ^{57}Fe 분말을 사용하였다. 이를 균일하게 섞고 Ar gas 분위기로 400°C에서 하소한 뒤, 2 ton의 압력으로 성형하고 석영관에 진공 봉합하였다. 봉합된 시료를 10시간 동안 700°C에서 열처리하여 분말 형태의 $\text{LiCo}_{0.99}\text{Fe}_{0.01}\text{PO}_4$ 시료를 얻었다.

XRD 측정을 통하여 시료의 결정성을 확인하였고, SQUID 자화율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료의 자기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Mössbauer 분광 측정을 통하여 초미세 자기장의 변화를 관측하여 시료의 미시적 자기 특성을 연구하였다.

2. 실험방법

시료를 직접 합성법을 통하여 합성하였으며, 출발 물질로는 Li_2CO_3 , $(\text{NH}_4)_2\text{H}_2\text{PO}_4$, CoO 그리고 동위원소 ^{57}Fe 분말을 사용하였다. 이를 균일하게 섞고 Ar gas 분위기로 400°C에서 하소한 뒤, 2 ton의 압력으로 성형하고 석영관에 진공 봉합하였다. 봉합된 시료를 10시간 동안 700°C에서 열처리하여 분말 형태의 $\text{LiCo}_{0.99}\text{Fe}_{0.01}\text{PO}_4$ 시료를 얻었다.

XRD 측정을 통하여 시료의 결정성을 확인하였고, SQUID 자화율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료의 자기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Mössbauer 분광 측정을 통하여 초미세 자기장의 변화를 관측하여 시료의 미시적 자기 특성을 연구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XRD pattern은 FULLPROF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57}Fe 치환 전과 동일한 사방정 구조의 단일 상 분말로 확인되었다. 공간군은 $Pnma$ 이며, 격자상수는 각각 $a_0 = 10.200 \text{ \AA}$, $b_0 = 5.919 \text{ \AA}$, $c_0 = 4.699 \text{ \AA}$ 으로 분석되었다. SQUID 자화율 측정기로 온도에 따른 자화율 측정한 결과, 9 K 이상에서는 일반적인 반강자성 현상을 보이나 9 K 이하에서는 자화율의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Mössbauer 분광 측정은 4.2 K에서 상온까지 다양한 온도에서 측정되었으며, 감마선원으로 Rhodium에 분산된 ^{57}Co 를 사용하였다. 9 K 이하에서의 자화율 증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4.8 T의 자장을 인가하여 Néel 온도 이하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자장의 유무에 따라 변하는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외부 자장이 없을 경우는 9 K 전후의 큰 변화가 없으나, 자장을 인가해줄 경우에는 핵에 작용하는 초미세 자기장의 큰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핵 주변의 전하분포에 따른 전기사중극자 분열치 또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4. 참고문헌

- [1] B. B. V. Aken, J.-P. Rivera, H. Schmid, and M. Fiebig, Nature, **449**, 702 (2007).
- [2] D. Vaknin, J. L. Zarestky, L. L. Miller, J.-P. Rivera, and H. Schmid, Phys. Rev. B, **65**, 224414 (2002).
- [3] H. Ehrenberg, N. N. Bramnik, A. Senyshyn, and H. Fuess, Solid State Sciences, **11**, 18 (2009).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Lona, mitzutonen)

한국-중국은 Chedronen(20세기 초반 9회) 및 12시간(총 13회)을 주관하였지만, 그 외에는 19세기 후반 및 13시간(총 13회)을 주관한 일본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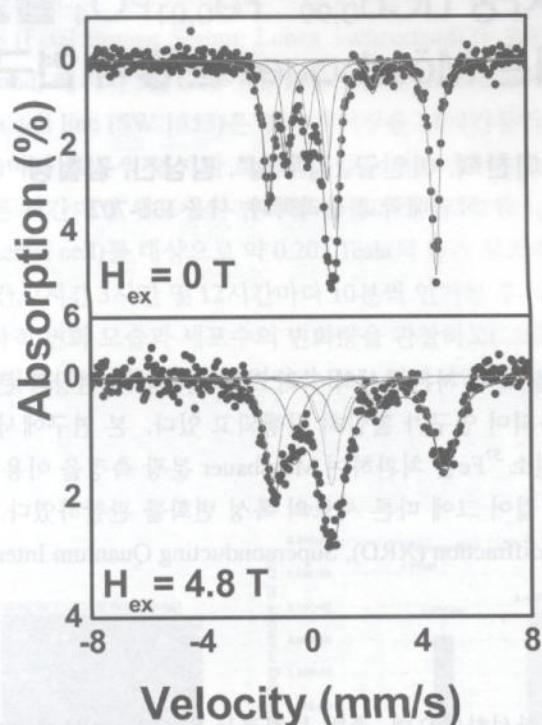


그림 1 4.2 K에서 $\text{LiCo}_{0.99}\text{Fe}_{0.01}\text{PO}_4$ 의 Mössbauer 분광 스펙트라